

#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6-10

최정웅 목사님

여러 차례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 흐름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반복되는 흐름을 깨달을 수 있다.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육신의 타락과 정욕에 빠져서 복음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흑암 문화와 흑암 종교에 빠져 버리고, 그 결과 큰 재앙이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멸망해 가는 중에, 복음을 깨닫고 회복시킨 한 사람, 또 한 팀이 나왔다. 이 팀들이 항상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이 회복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회복된 결과, 시대도 회복되고 복음을 붙잡은 나라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 북한 문제 때문에 나라가 여러모로 혼란스럽다.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복음을 놓치면 시대에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제양으로 가는 흐름을 바뀌어 되겠는데,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와 바울 전도 팀이었다. 이 사람들은 선교를 이해한 사람들이었다. 전도를 이해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오늘 1부예배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게도나로 가는 흐름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는 것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 1. 바울이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의 흐름

(1) 우리는 바울이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의 흐름을 보아야 되겠다. 바울이 원래 복음이 없어서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다. 굉장한 엘리트고 성공자였지만 사실은 복음이 없어서 계속 멸망하는 상태 속에 있었다.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와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해결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게 된 것이다. 자기 열심히 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종교였고, 이것으로 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으면서 드디어 인생의 근본이 뒤집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단, 지옥의 근본 흐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된 것이다. 바울 개인에게 근본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교수들에게 모두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는다. 또 이게 되기를 축원한다.

(2)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서 바울이 한 것은,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것이었다. 복음을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확인하면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완전히 각인시켜 나갔던 것이다.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에 믿음의 뿌리가 계속 내려지게 되었다. 복음체질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갈2:20의 상태인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정도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게 된 것이다. 이 정도에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되기를 축원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두려지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단계로 가야 한다.

(3) 이렇게 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셨다. 다소에 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고집내내어서 안디옥이라는 중요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게 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게 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온다.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 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근본 멸망의 흐름을 뒤집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다가 전도의 흐름을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 복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훈련을 받고 있다. 현지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결정적으로 영적 싸움이 쉽지 않고, 삶의 싸움, 문화와의 싸움을 하다가 그로기 상태에 빠지고 번 아웃(burn out)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힘을 주고 훈련을 받게 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10억 원 이상의 헌금을 했다. 어느 교단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다. 큰 교단도 하지 않는 일이다. 매년 이렇게 헌신해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도 52개 국에서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했다. 이분들이 모여서 집중훈련도 하고, 선교대회를 하면서 메시지를 받고 힘과 은혜, 소명을 받고, 다시 사명을 다짐해서 현장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보내는 자의 축복, 누리는 축복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의 노고를 정말 치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4) 네 번째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드디어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선교사를 선정하지 않나. 역사상 최초의 선교

사로 응답을 받아서 파송을 받게 된다. 이게 바울과 마나바다.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흑암 세력을 꺾고 제자들을 찾아서 세우는 응답을 계속 받게 된다. 이 확실한 복음이 없으면 선교는 할 수가 없다. 내가 일본 하마마츠에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내 친구가 목회를 하는 교회였다. 아주 똑똑한 친구다. 한국에 있었으면 총회장을 했을 만한 인재였다. 이분이 영락교회의 파송을 받고 하마마츠에 갔는데, 3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져 버렸다. 선교 사역을 마쳤는데 교회도 없어지고 제자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갈 곳이 없어서 헤메다가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다고 한다. 참담한 일이다. 한국 최고의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물질로 후원을 했겠는가. 그런데도 교회 하나, 제자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30여 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로 물러나게 되었다. 30년 선교가 흔적 하나 남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원칙적인 복음을 쥐서 보내지만, 만약 우리가 선교 센터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가서 제자를 세우지 못하게 된다. 지난 12월에 심주환 선교사님이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우리는 세례 받아도 오만 짓 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혼당해도 괜찮고 쫓겨나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결단을 하고 받는 것이다. 실제로 그 성도도, 남편이 쫓아낸다고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다." 자기 생을 내걸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해서 세례를 준 것이다. 여러분도 가 보셨지만, 나는 갈 때마다 느낀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장소다. 4, 5억 정도 들여서 사들이면, 이곳을 완전히 복음의 센터로 쓸 수 있겠구나 싶다. 우리 교회가 헌당을 했다면 이것부터 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선교하러 와서 센터부터 지었다.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다. 종로 거리에 가 보면 센터를 세웠다. 기독교회관, 100주년 기념관, 전부 선교사님들이 사 놓은 땅이었다. 우리 돈으로는 살 수도 없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가는 데마다 센터가 다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도 다른 선교사가 와서 그것을 토대로 계속 선교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다 한국 교회에 주고 갔다. 돈을 받고 판 게 아니다. 이것을 토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자 교회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얻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선교사는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다. 말도 문화도 완전히 다르지 않나. 말로 복음 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족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윌리엄 캐리처럼 그 나라의 문화를 섭렵하고 그 속에서 살지 않으면 그 영혼 속에 파고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

(5)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흑암 세력을 꺾고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구브로에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루스드라와 디베에서 또 사역하고 제자를 찾아 세웠다.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된 것이다. 선교의 흐름을 누릴 때 오는 것이 응답의 흐름이다. 여러분, 바울의 흐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흐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자기 인생 시건표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 2.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이 찾아낸 응답

큰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순조롭게 인도를 받아 왔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문이 갑자기 막혀버린 것이다. 성령이 막았다고 했다. "성령이 아시아-오늘날의 터키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 전하라고 세운 중을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가?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 '아, 이것은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만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 느낌을 가져야 한다. 자, 보라. 이때 바울이 무엇을 찾아냈는가? 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찾아내어야 할 응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찾아내고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1) 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닌가. 성령이 하신 것 아닌가.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성령의 인도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까. 이 부분을 두고 몸부림을 치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싸우기도 했다. 성질이 더러워서 싸운 게 아니다. 감정이 쌓여서 싸운 게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툰 것이다. 그만큼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2) 지금 이런 바울에게 문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신 것이다. 그 쪽도 아시아 쪽이니까 아직 가지 말라는 것이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계속 막았다는 것이다. 억지로 하지 마라.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한다. 바울은 성령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 막으시면 왜 막으시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인도를 받았다.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 억지로 그 계획을 밀고 나가지 않았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나? 꿈에 뭔가 보일 정도까지 기도한 것이다. 뭐가 나타났나? 편안하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뭔가 사건이 생기고 문이 막히면, 그것은 집중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사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3)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자.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했다. 마케도나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청하여 이르기를, “마케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나는 유럽 쪽이다. 그쪽으로 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로 돌게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한계를 무너뜨리신 것이다. 바울이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선교지는 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었는데, 이 안에서 평생 사역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나를 보게 하시고, 더 큰 로마 전체를 보게 하시는, 전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이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한계가 무너지게 된다.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감사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있고, 그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런 한계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는다.

(4) 바울이 무엇을 보았는가?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다.” 성령의 인도에 순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그 쪽을 향해서 가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세미한 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인정한이러라.” 하나님의 인도로 믿었던 것이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 모든 선교의 눈이 바울에게 또다시 열리게 되었다. 마케도나가 어떤 땅인가?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다. 옛날부터 철학, 지식의 세계에서 제일 발달했던 동네다. 경제가 엄청나게 풍요로웠던 곳이다. 그런데, 다 있는데, 사실은 우상이 제일 많이 발달했던 곳이고, 결국 제약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는 눈이 바울에게 열리게 되었다. 선교의 더 큰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오늘 선교주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후원하고, 어떻게 선교에 헌신하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 교회의 위치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면,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발견하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는다.

(5) 이 눈을 연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로마 복음화를 할 핵심 제자를 붙이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에서 일어난 제자들이 바로 로마를 복음화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었다.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면, 우리가 헌당을 하고 나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서 선교지를 보고,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 선교하기 위해서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이것이 정말 박히게 되어야 한다. 이번에 예비선교사들을 뽑았는데, 주일학생들부터 청년, 중고등부 학생들을 선정했다. 이 아이들이 벌써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어느 나라를 두고,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닌가. 오스왈드 스미스는 인도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뽑아주지를 않는 것이다. 인도는 캐나다와 풍토가 완전히 다르다. 19세기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영재들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선교사로 나갔다. 14년 뒤에 다 죽었다. 선교지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중국, 인도로 선교사로 갔다가 14년 만에 일곱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를 영계를 지도할 굉장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후후죽순처럼 일어났다. 이들의 헌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도나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꿈을 꾸고, 다시 한 번 기도제목을 정리하고,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위축되어 있을 때가 아님을 깨달아야 되겠다. 북한은 지금 수 소폭탄을 만들어서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전쟁이 나는 꿈을 요즘 꾸고 있는데 잠자리가 피곤하다. (웃음) 전쟁이 터지면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이제 선교의 눈을 떠야 한다. 이번에 선교대회를 치르면서 몇 가지 영상을 봤지만, 윌리엄 캐리의 영상을 봤다. 이 사람은 인도선교의 아버지로 선교의 중시조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도 사람처럼 터번을 쓰고 맨발로 다니며 손으로 밥을 먹었다. 허드슨 테일러를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중국 내륙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영국과 호주 여러 나라에서 오는 선교비를 거절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교하겠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생명을 건 것 아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거절했다. “나는 이제부터 이 민족과 함께 살고 이 민족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가 떠날 때에는 6천 명의 선

교사가 중국내지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전부 그들은 자비량 선교사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언제 한 번 죽으신 적이 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오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자, 허드슨 테일러의 영상을 보고 자료를 보면서 나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다. 대단한 분들이었다. 정말 시대적인 선교의 문을 연 분들이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의 이야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선교사로 가려고 서원을 했는데 몸이 약해서 갈 수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할 수 있는 선교를 깨달은 것이다. 못 가면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그가 캐나다 토론토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주제로 삼고 People's Church라는 교회를 세웠다. 여기에 계속 부자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토론토의 부호들이 여기로 모이는 것이다. 5달러, 50달러, 500달러, 5천 달러로 현금이 계속 나오더라는 것이다. 처음 갈 때는 한 교회가 100명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다.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슬로건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더 거기를 가 봤더니, 지금 16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스미스 이후 4대째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를 1600명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선교 발당을 교회 밖에 따로 세웠는데, 1600명을 보필하기 위해서 따로 발당을 세워놓은 것이다. 나는 주저않을 지경이었다. ‘아!’ 싶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말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을 그 교회에 쏟아부은 것이다. 산업이 잘 되니까 한 사람이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던 것이다. 처음에는 5달러, 10달러, 100달러 보냈는데, 응답이 오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요즘 우리 교회가 선교비가 모자라다고 한다. 매달 750만 원이 나가는데 100만 원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는 혼자 기도하고 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선교헌금을 십일조와 똑 같이 하고 있다. 우리 교우들이 선교비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러분, 가슴이 쩡하지 않던가? 공부를 왜 하나? 진도 때문이다. 돈을 왜 버나? 선교하기 위해서다. 아이들이 이 말을 복음메시지에서 하지 않나. 이번에 14명의 선교사를 또 파송했는데 다 엘리트들이다. 공부도 제대로 하고, 우리 학교도 제대로 나왔다. 독일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14명이 나간다. 나는 너무 가슴이 뿌듯했다. 저분들을 우리가 잘 보필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번에 우리가 사실 한 분을 뽑았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100% 책임지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 지방 도시, 대전의 교회에서 빼앗아갔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하루 저녁은 선교사님들을 다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내 마음으로, 우리가 보필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란다. 정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겠는가. 우리 이명 집사님과 배송찬 집사님은, 선교사님이 선교대회에 참여하려고, 직접 일본에 가서 1주일 동안 아이들을 봐주고, 밥 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이다. 인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다. 기도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데 있다. 담전2:4이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한 나라를 정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얀마 같은 나라,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는 라오스 같은 나라를 하나 정해서, 그 나라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지도를 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란다. 우리교회 청년도 선교사님 비서가 되어서 계속 기도제목을 올리고 비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단, 단체 안에는 가득 있다. 어느 교단도 이런 것이 없다. 어느 교단도 20년 동안 선교대회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단체가 없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란다. 내가 왜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기 바란다. 여기에 우리 기도가 담겨야 되겠다. 우리가 있는 현장도 전부 전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 한 번도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선교지다. 그래서 직장도 학교도 선교지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러면서 정말 해외의 많은 선교지 현장을 두고 세계선교를 위한 실천을 함께 붙잡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교의 실천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참사랑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초청하고, 이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기도제목을 정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제목을 다시 정리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후대에까지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권 영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재력을 주시고 역량을 주시며, 기도를 모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